

근대시기 제주도 주거의 변화

김석윤(김건축대표/건축공학박사)

1. 서론

주거가 공간형식으로 실체화된 것이 주택이다. 주거는 내용이고 주택은 형상이라는 말이다. 주거는 보편성을 가지지만 주거의 가시화 형식인 주택은 당해 지역의 기후풍토와 문화형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선대의 것일수록 기후조건의 간섭이 크고 후대로 올수록 사회, 문화의 영향이 확대 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 주거문화를 통해서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관계와 과학 기술적 역량과 함께 그 문화의 품격을 가늠할 수가 있고 미적 감성의 경향도 읽어낼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주거는 한문화 주거계통에서 고행(古型)으로, 그리고 특이종으로 양면에서 가치가 인정되어왔다. 선행 연구들에서 전통 제주주거의 대표 형식을 안밖거리집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안밖거리 주거형식의 내면층에는 한 문화의 중심 지역인 내륙과 전혀 다른 가족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문화는 정체해 있지 않는다. 스스로 생성, 소멸의 과정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교류와 간섭하는 방법으로 이종과 혼용과정에서 갈등과 타협을 거듭하며 변이하고 유전하는 생태적 속성을 가졌다.

이 글은 제주도 전통주거 연구 성과에 이어지는 후속 작업으로 근대시기에 제주도에 서구의 근대 주거 형질이 유입과 전개과정에서 전통과 근대 두 형질 사이의 갈등과 융합에 대한 것이다.

당연히 선행 제주주거연구의 성과인 안밖거리집이 가지고 있는 주거관념과 건축적인 특성에 관한 지식들이 이 작업의 바탕이다. 즉 제주도 전통주거의 유전인자로 밝혀진 구심성 공간구성과 별동배치, 그리고 마루에 중심성을 두는 평면조직의 독자성과 재료와 공법, 규모와 부대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인자들이 서구의 합리주의적 근대이념의 영향으로 전이된 현상을 탐색하여 제주도 주거사에 통시성을 제작해 내려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다.

개항기 이후 새롭게 제주에 유입된 주거형식이 현존 사례들의 조사를 통하여 전통 주거의 인자들의 전이, 소멸, 유전현상을 증명하려 한다.

2. 본론

주거공간의 근대성이란 합리주의적 도식에 따라 방들이 용도별로 구획되고 공간이 가족 중심적 성격을 지닌 주거형식을 말한다. 이전 시대까지 과시적이고 공적인 방식 위주로 이용되던 주거생활이 근대주거에서는 가족관계가 우선시된다. 방들은 기능별로 분화되고 그것들의 이용 방법을 가족생활을 기준으로 대응시키고 일치 시키려한다.

일편 주택은 공법이 과학화되고, 신재료의 발명과 기계화되어 대량생산 체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대성 주거공간의 성립 기반이 이러하다. 개항과 일제 강점기에 우리 전통주거문화는 격동기를 맞는다. 선교사들은 서구식 근대 주거를 들여왔고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자기들의 주거형식을 이곳에 이식시켰다. 일제는 관리들의 관사와 일인 사택들을 중심으로 일식 주택 혹은 일양절충식 주택들이 세웠다. 일양 절충식은 일본이 서구 근대 양식을 들여와서 자기 원래 양식과 접합시킨 주거 양식을 말한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전역이 동일하지만 선교사의 양식주택은 보이지 않고 일식집이 일색이었던 것은 제주 근대 도시 경관의 특색이다. 원래 한옥이 다풍지역인 제주의 기후 특성에는 맞지 않은 점과 이 시기에 인적교류가 본토보다도 일본과 빈번하였던 지리적 조건이 제주 근대주거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할 것이다.

주택의 전통적 생산양식이 해체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상품시장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로운 건축 재료인 시멘트와 벽돌, 유리, 철이 공급되어 주택의 외형이 변화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고 공법 전반에 합리적이고 규격화된 서구 신공법이 보급되기에 이른다. 양회 즉 시멘트가 외벽의 마감 재료라든가 혹은 쌓기의 사출재료로 쓰이기 시작하고 마감공법으로는 씻어내기, 뿔기, 갈아내기 등 다양한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건축 재료와 공법의 사용으로 시가지 풍경이 확연히 달라진다. 근대경관의 시작이다. 이 새로운 재료와 공법과 건축이념을 유입은 일본인 관사와 사택에서 시작되었다.

가. 일본인 관사 / 일본인들은 관리들을 위해 한반도 전체 도시에 관사를 많이 건설하였다. 이 업무는 조선 총독부에서 전담하였는데 관리의 직급에 따라서 규모가 연면적 백평 이상의 저택급에서부터 열 평 남짓한 하급 관리용 숙사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였다고 한다. 칩임관 관사는 330제곱미터 이상, 주인관 관사는 99~198제곱미터, 판임관 관사는 66~83제곱미터로 하는 식으로 등급이 10단계로 구분하여 공급되었다.

관사는 사용부재의 규격과 평면이 표준화되어 동일한 설계안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했다. 간<6척=약1.8M>을 모듈로 하여 각 공간의 크기를 규격화하고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관사건축의 특징이다.

관사건축은 초기에는 일식주거형식으로 지어지다가 곧 양식의 접객공간과 일본식 주거공간이 결합된 화양절충식으로 바뀌었다. 이 형식이 중북도형주택인데 그들의 전통 주거의 근대화 과정을 나타내는 평면형식이다. 방들을 개실화하기 위하여 내부 복도를 둔데서 온 명칭이다. 관사는 접객기능이 중요한 성격에 알맞도록 현관에 붙여서 양식 응접실과 서재, 그리고 객실이 마련하고 이 부분에 많은 면적을 할애하고 있다.

응접실과 서재는 입식가구를 사용하는 서양식하고 객실에는 일본식 다다미를 깔았다. 내현관 우측 입구 쪽에 하녀실이 있고, 일본식 자시키와 차노마 그리고 부엌과 욕실이 있다. 후면에 있는 엔가와/側緣는 접객공간과 생활공간을 잇는 보조 이동공간으로 사용된다.

일식 관사는 기준 평면도를 한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비롯하여 주택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급하는 데에 서구의 근대건축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택의 평면과 입면 그리고 외부공간의 권역 분배 개념 등, 계획기법의 내용들이 근대적 설계이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 관사건축의 성격이다. 이 관사에 적용한 중북도형 일식주택이 한반도 전역으로 파급되었던 경험은 이후 우리 근대주거단지의 생산에 활용되어왔다.

제주에는 대표적 관사주거로 도사/島司관사가 있었다. 제주목관아지의 동측 일우현재 노인회관이 도사 관사의 옛터이다. 신제주에 도지사관사가 새로 건립된 1980년대의 초까지 남아 있었다.

오현로 제주은행 본점 건너편에는 법원장과 검사장 관사가 연접하여 자리해 있었다. 이 관사들은 모두 목골구조에 라스치고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는 오카베/大壁구조에 지붕은 일본식 기와를 덮었다.

일제시기 제주읍내 부자동네인 일도동과 삼도동에 몰려있던 큰집들은 모두 이 관사를 본보기로해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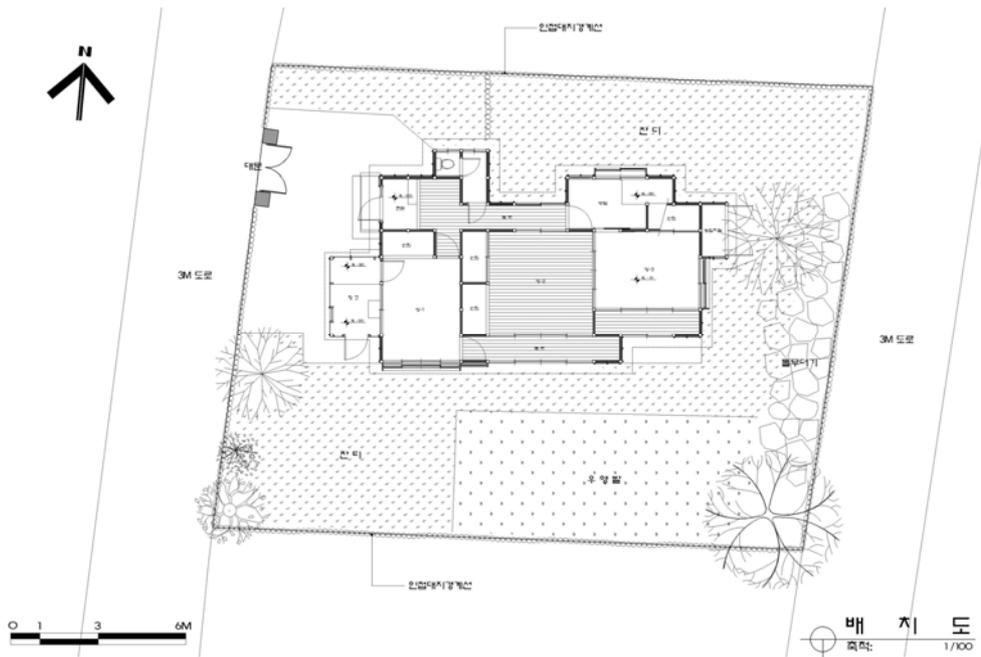
<사진1.제주측후소와 관사>



< 사진2.일식관사의 화장실>

나. 일본인 사택 / 사택은 기업체의 임, 직원들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으로 일반회사의 것과 은행 사택이 있었다. 제주에는 건입동의 동초등학교 인접에 단지형식의 동척회사의 주정공장 사택과 은행사택들이 모여 있었다.

동척회사의 사택은 서양식 목구조에다 외부벽은 누름대를 규칙적으로 설치한 비늘판벽 외장이다. 박공지붕인 일식집으로 이십여동이 규칙적인 단지를 이루었었다. 크레오소드를 칠한 검정색 널판벽이 이색 경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폐가가 되다시피 낡은 한 채가 남았다.



<도면2. 동척회사사택 평면도/양상호 실측>

이 사택들과 연접해 있던 은행 사택들이 있던 자리는 대로변에 접해 있었기 때문

에 더 일찍감치 상가로 변했다. 동척회사의 사택 보다는 관사와 같은 형식인 화양 절충식 중복도형 평면이었던 기억이다.

사택들은 접객공간을 두기 위해 별도의 화장실과 내현관을 설치해 생활공간과 구분하고 현관에 붙여 양식 응접실을 두고 가족이 사용하는 내현관을 따로 두고 있다.

현관 근처에 하녀실을 두고 복도 끝부분에 부엌이 있다. 접객공간과 주생활영역을 적절히 분리하려는 서양식계획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사진3.동척회사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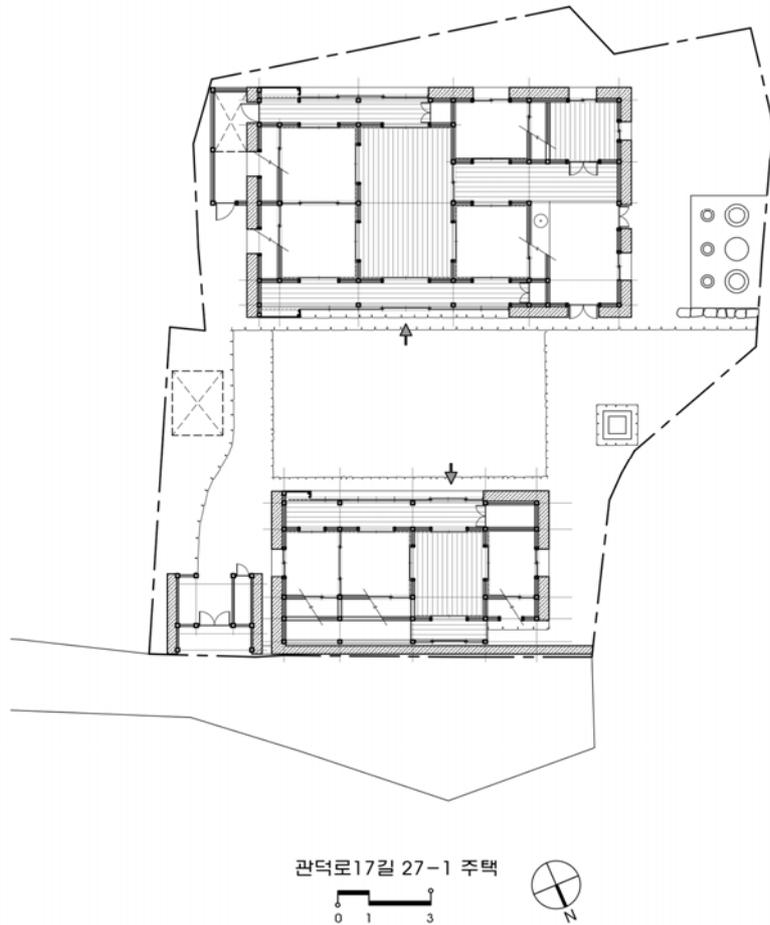
다. 제주 근대주거의 사례

다-1. 관덕로17길27-1, 고씨택 / 서측 산지천변 큰길에서 갈리는 짧은 골목 안에 있는 고씨 주택은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마당을 가운데에 두고 안채와 밖앗채가 마주보고 앉은 제주전통주거의 전형인 안밖거리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는 내용이 주목 되는 내력이다. 안밖거리가 두가구로 지적이 분할되는 가족사를 가졌으나 처음 한집일 때의 상황을 살펴야 이 집의 특질이 주거문화사적 가치를 알게 된다. 제주 전통주거의 특성인 별동형 배치방법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제주도주거사의 흐름을 파악할 유효한 관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계 주거문화에서는 배치 방법이 주거공간조영에 핵심원리이다.

이 집은 집짓기의 기본틀인 배치는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구조가 일본식 목조집이다. 목조심벽구조에 외벽부분은 옛 공법대로 제주돌 쌓기하고 시멘트모탈로 틈새를 채웠다. 목재의 재질은 삼나무로 보인다. 현지산이 아니고 일본에서 들여왔을 듯하다. 치목 솜씨가 세련된 것이 숙련된 장인의 면모를 감지하고 남는다.

안채, 밖앗채, 문간채 까지 모두 세 채 건물은 지붕에 일식 토기와를 올렸다.

안채의 평면은 중복도식주택의 간살을 하고 있다. 일식 주택이 서양풍을 받아들여 개선된 새 형식이 중 복도식 주택인데 복도를 두면 방을 건너 방으로 나들며 침해되던 각방들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 방을 사용하는 관습에 양풍이 섞인 모습이다. 부엌 가까이에 창고(고방)을 붙여 둔 것도 동선을 단축시킨 근대성 사고의 소산이다.



<도면2. 고씨댁 평면도/필자 실측>

안채는 전후면의 툃(緣側)마루에 우호(雨戶)를 설치하여 제주 옛집이 풍채로 비바람을 막았던 원시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호(雨戶)는 제주도의 기후에는 대단히 매력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날씨에도 집안을 밝고 안정되게 해주고 청명한 일기에는 여러 짝 문들을 모두 한쪽으로 몰아넣어 툃마루의 개방감과 효용성을 유지해준다.

밖앗채는 홑집 평면에 전후에 퇴간을 붙여 마당쪽으로는 툃 달고 뒷쪽에는 담장에 처마 끝이 닿을 만큼 일식을 달아서 벽장 아래에 시설된 온돌에 불을 때려 다니는 통로로 쓴다. 이 아마도/雨戶와 아마하시/雨端, 일식 기와 때문에 이 집은 영남 없는 일식집의 외모를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제재목 네치각재 단면을 기본으로 한 기와리(木割)의 경쾌한 구조미를 보여준다. 밖거리 아마하시/雨端,(눈섭지붕)도 이전에 제주에는 없던 이색적인 상세이다.

제재목을 사용한 네모 서까래와 지붕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 격자살 미서기문이 이 경쾌함을 더욱 농 짙게 한다.

마루와 복도, 퇴마루(緣側)에는 기둥과 보등의 구조제와 같은 재질의 널판으로 장마루를 깔았다. 장마루도 근세형 공법으로 오래된 공법이 아니다.

한편 제주돌을 장대로 다듬은 섬돌은 토속의 고법이고 방들은 다다미방이 아니라 개량된 온돌방이다. 온돌 개량이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식 주택이 제주에 전래되는 초기에는 오카베(大壁) 구조이거나 동척회사의 사택에서 보듯 널판벽 형식이 전래하였을 것이나 이 집은 제주 옛법대로 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랐다.



사진4. 관덕로 고씨가 1



사진5. 관덕로 고씨가 2



사진6. 관덕로 고씨가 3



사진7. 관덕로 고씨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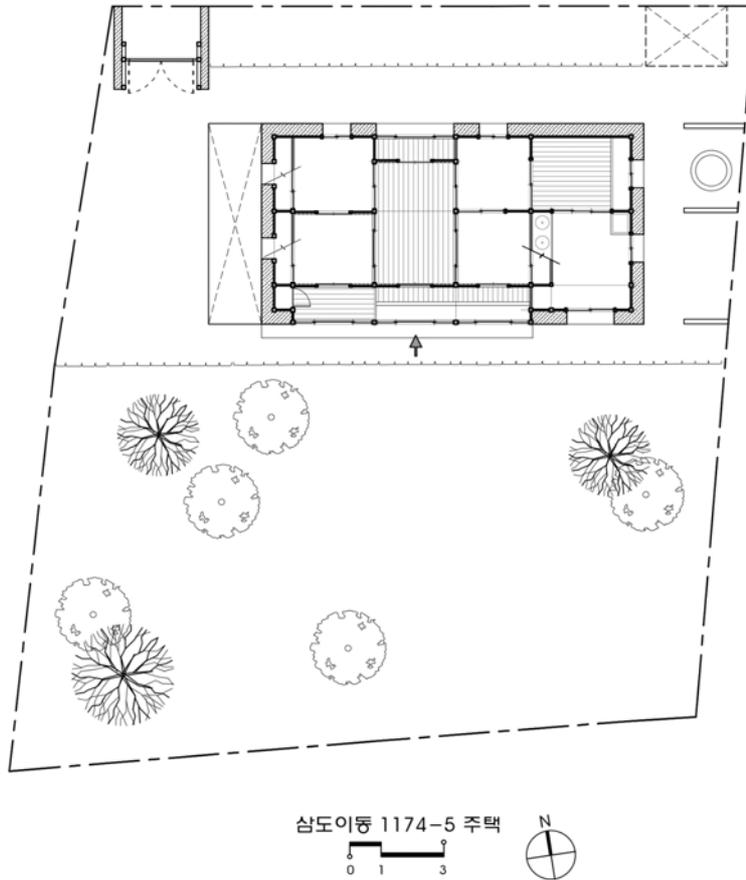
본채와 같은 맥락의 단간 평대문은 출입구 양측 여분에 허드레들을 보관하는 시설을해서 알뜰하게 활용했다. 들어난 지붕밑은 네모 서가래가 아니고 둥근 서가래로 볼품을 셈에 둔 것이 본채와 차이가 난다.

부엌 가까이 우물이 있는 것은 수원이 흔했던 집터의 실리를 살린 일이겠는데 집 울안에 우물을 둘 수 있는 형편을 가진 동네는 제주도 안에는 성안뿐이었다. 밖거리 한 칸 폭의 쪽방은 손님을 위한 것 아니었을까?

안거리 후면 퇴마루에 접해있던 제거식 화장실은 개축되어 원형이 없어졌으나 밖거리의 뒷모습과 같이 처마 아래로 눈썹지붕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내용에 미루어 이 집은 일제강점기의 중반에 안밖거리 형 제주전통이 도시형주거로 변화되기 이전단계, 즉 일본풍과 우리전통이 융합된 근세주거의 초기형식으로 사료적 가치를 지녔다.

다-2. 삼도2동1174번지 일식주택 / 이 일대의 지적도를 보면 대지들이 반듯반듯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에 새로운 가로계획으로 이지역의 공간의 크게 달라져버렸지만 골목길도 옛 올레 모습들하고 대조적으로 직선형이다. 인접된 목관아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계가 불규칙한 집터들에 비하여 규칙적인 형상을 가진 것은 후대에 이루어진 새 동네라는 얘기가 된다.



<도면3. 평면도/필자 실측>

집모양도 다르고 배치형식이 전통적인 제주도식이 아니다. 북측으로 진입로를 두는 것도 개혁적인 계획이념에 따른 결과이고 정원을 남쪽에 두고 이쪽을 향하여 단일동의 주거를 배치 한 것은 근대건축의 교과서적 배치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채의 구조는 서양에서 배운 일본식의 근대형 목구조이다. 전면에는 주지붕 처마 아래로 엔가와 부분에 아메하시/雨端 (눈섭지붕)를 달고 있는 모습이 더욱 일본풍을 자아낸다. 기둥재와 보는 반듯하게 다듬어진 제제목을 사용하여 일본풍인데서 까래는 한옥식으로 둥글게 다듬고 소메걸이를 한 것이 눈길을 잡는다. 눈섭지붕

의 서까래는 각목으로 가냘픈 일본풍 상세를 사용해서 구조에서 한식과 일식이 공존한다.

지붕에는 널판위에 알메흙을 깔고 시멘트제의 일본식 기와를 얹히고 추녀와 마루의 이음새를 회바름으로 메웠다. 이것은 일본기와이기의 보편적인 시공법이다.

전면의 엔가와와 개구부에 격자살 유리창과 문을 단것은 비바람을 막는 장치로 이 시대에 일본식에서 배운 가장 매력적인 새 트렌드였다.

개구부를 제외한 외벽부에는 제주돌로 옛 방식에 따라 덧벽을 쌓고 새 재료인 시멘트몰탈을 온통 덮고 그 위에 다시 몰탈 뿌리기 기법으로 맵시를 냈으니 초기 일식집의 판장벽보다 기밀성도 좋고 내구성 면에도 실속이 있게 되었다.



사진8. 삼도동1174 정면



사진10. 삼도동1174 아마하시



사진9.. 삼도동1174 우호



사진11. 삼도동1174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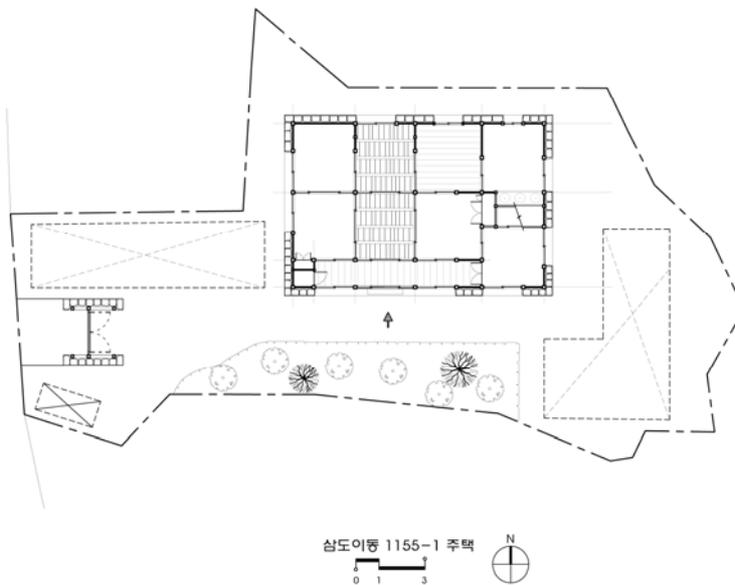
평면의 간잡이도 전통과 일본식이 섞였다. 온돌시설이 있는 것은 기술과 새로운 장치는 신공법을 수용하고 생활습속은 풍토의 것을 지키게 된 일제강점기 중, 후기 주거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는 격자살 한지문 가볍게 간을 가르고 내벽은 산자 흙벽 에 회를 바름하였거나 도배바름이었을 것이다. 천정도 모두 산자흙바름 한 흔적이다.

대문은 평대문으로 본체의 구조와 재료가 같으나 서까래를 제재된 각목을 쓰 처마돌림으로 마구리를 막았다. 변소는 제거식으로 집 뒤의 도로변에 따로 있다.

토속과 일본식이 섞였으나 전통의 기본 조영기법을 더 많이 간직한 절충형 주거 형식으로 일제강점기 중, 후기 (1930~1940년)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건설되었던 듯 하다. 전통시기에서 벗어나 제주시가 최초 확장 시기를 맞았던 시기로 반듯한 대지 조성이나 단동의 남향배치형식, 건축구조와 장마루와 왜식기와, 그리고 몰탈 뿌리기 등 등 재료와 공법이 두루 새롭다.

다-3. 삼도2동1155번지의 제주기와집은 전통적인 주거형식 변화단계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본체가 대지의 가운데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마당이 없는 것은 제주의 전통 주거가 농사를 짓지 않은 도시형 생활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 농사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외부 작업장 마당보다 내부공간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도면4. 평면도/필자 실측>

구조형식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익힌 새로운 치목공법을 사용하고 평면의 간 잡이가 일본식 田자형을 따르고 있다. 텃마루는 앞쪽에만 두고 유리문을 달았다.



사진12. 삼도동1155-1 평대문



사진13. 삼도동1155-1 부분



사진14. 삼도동1155-1 제주기와



사진15. 삼도동1155-1 외벽상세

치장이 치밀하고 내부에 미단이문을 많이 설치하고 천정도 모두 엇평치고 회바름으로 막았으니 내부는 영락없이 일식집과 닮았다.

다만 마루를 우물마루로 깎 것하고 목골조 밖으로 제주돌로 벽을 쌓은 것과 한식기와를 옛 공법으로 올린 것은 토속의 기분을 고집하고 있다. 지붕의 짜임새는 추녀곡이며 안곡을 두고 소매견이한 서까래로 한옥의 내력에 충실한 모습이나 서까래 위에 산자를 엮지 않고 지붕널을 깔고 있는 것은 일본집의 방법과 같다.

벽을 쌓은 돌은 크기를 고르게 하고 바른층으로 가지런히 쌓은 것은 숙련된 장인 석공의 솜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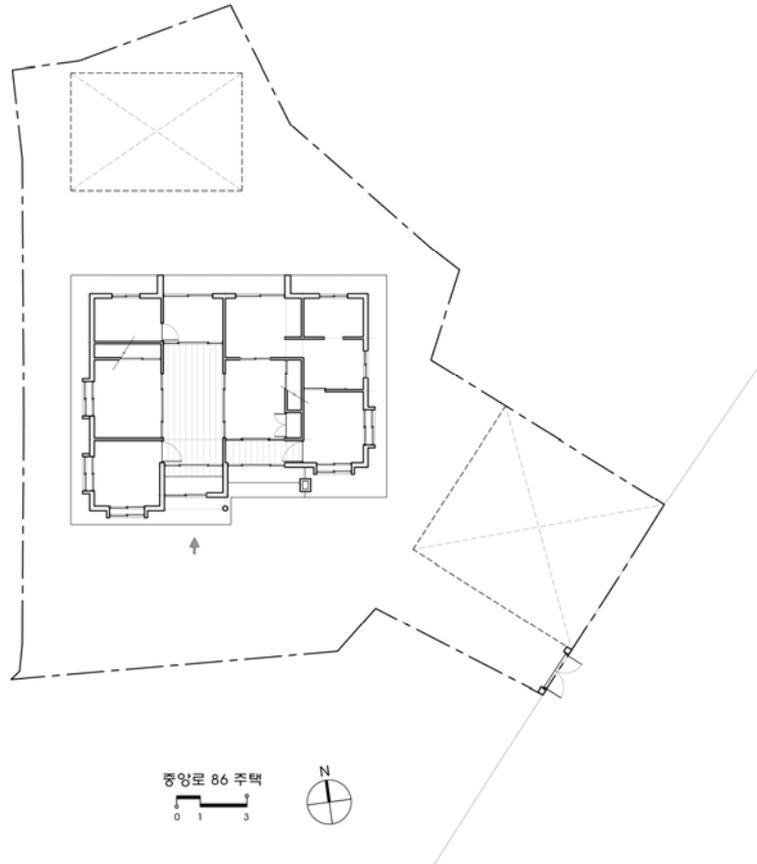
옛집들이 바람 많은 기후특성에 맞추어서 낮고 어두운 것을 해결하려는 욕구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 도입되고 주거형식이 도시화되는 단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해결하려던 과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의 집형태의 변화에 집 높이 변화와 유리사용이 집중되었던 것은 이를 증거 하는 것이다.

이 기와집은 정통 주거의 조형을 따르고 있으나 집 높이를 더 높게 하고 덧벽을 다듬어 쌓은 것으로 제주형 도시한옥의 격조를 더하고 있다.

주거동의 재료, 공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세운 단간의 평대문은 이집의 첫인상을 또렷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크고 거칠기도 하고 간간이 붉은 황토색으로 색다름을 보이는 것이 제주형 한옥인데 이 집은 이 제주형 한옥의 풍미를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사례일 것이다.

다-4. 중앙로 86번지는 옛 한짓골로 불리던 동네이다. 60년대 초반에 중앙로가 개설되어 노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이 주택은 높은 건물의 뒤편에 가려져 있다.



<도면5. 평면도/필자실측>

주거형태의 근대적 변화는 우선 건물의 배치에서부터 감지된다. 대지의 한가운데에다 건물을 배치한다. 주거가 과밀화되고 생업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뜻이다. 평면 조직은 생활형식을 나타낸다. 도시화에 맞춰 주거기능들이 내부공간화 되면서 주거의 규모가 커지고 평면 형태는 구형/矩形에서 벗어나 ㄱ자형태가 된다. 일식집에서 전래된 신벚기의 전용 공간 현관이 생기고 현관 바로 옆에 돌출된 방은 응접실로 쓰인다. 오랜 세월을 지내며 내부구조가 개축되어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흩어져 버렸지만 이집은 일식집의 틀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형식이다. 방과 대청을 전면에 놓고 뒤편으로는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부엌을 놓는다. 일제말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16. 중앙로 86 전경



사진18. 중앙로 86 내부



사진17. 중앙로 86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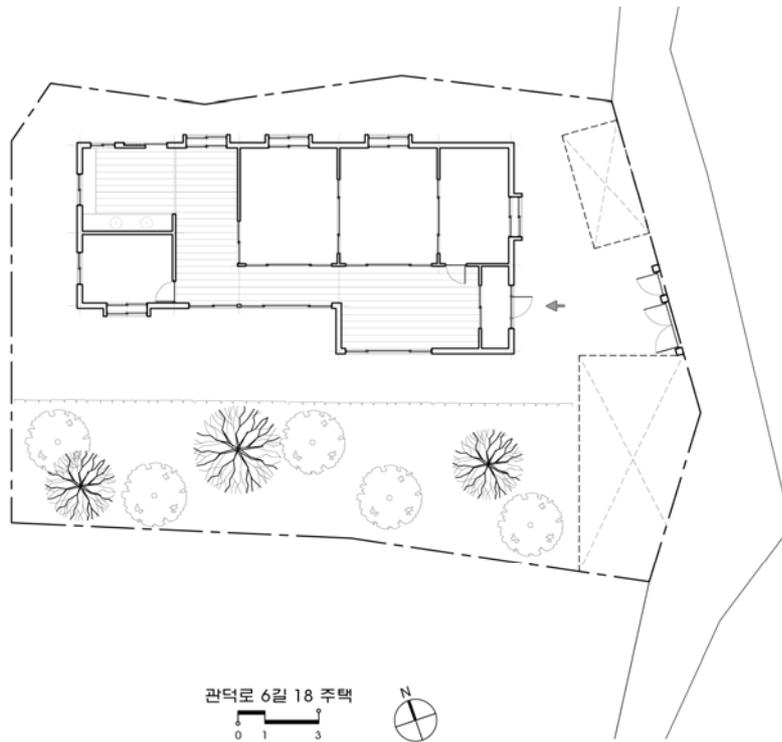


사진19. 중앙로 86 처마상세

조적구조에 목조지붕에 시멘트제 일식 기와를 올렸고 처마 밑은 바람막이 널판으로 막았다. 조적 구조는 개구부를 넓게 낼 수없는 것이 단점인데 이를 보완 하려면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조적구조 보급 초기의 다른 집들에 비해서 이집은 콘크리트를 여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현관 밖 포오취에는 원기둥으로 콘크리트 평스래브 채양을 바치고 있고 창 의 주위를 모두 콘크리트로 돌출시켜 곡선처리를 하거나 재료 끼리 이음새와 분리를 정교한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벽은 인조석 물씻어내기와 세라믹타일로 마감하여 이 시기의 신재료 신공법으로 십분 공을 드렸다. 인조석 물 씻어내기 공법은 숙련된 미장공만이 할 수있는 고급 신공법이었다.

처마의 물흙통과 건물 외벽의 하분/下分처리 상세들을 종합해 살펴건데 이 집은 새 양식이 들어와서 지역 특성에 따라 수정되기 전 단계의 성질들이 두드러지게 간직하고 있다. 근대 초기 주거형식으로 분류 할 사례의 하나이다.

다-5. 관덕로 6길18에 있는 김씨택은 외양으로는 일식 오카베구조를 보여준다. 오카베구조는 우리는 목조평벽이라고 부르는데 외부마감이 자유로워 널리 쓰이던 공법으로 일본식 집의 일반형 공법이다.



<도면6. 평면도/필자 실측>

내부 간막이벽은 목조심벽이다. 심벽은 기둥과 기둥사이를 산자 혹은 얇은 목재(기스리)로 엇평치고 그 위에 흙이나 회바름으로 마감하므로 기둥이 노출되는 벽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와 똑같이 지붕에는 일본식 시멘트기와를 올리고 처마부분의 처리도 처마돌림과 바람막이 널판으로 가리고 있는 것하고 흙통을 설치한 모습도 같다. 외부 마감는 현관 부분에 장식성을 집중, 강조하고 다른 집에서 많이 쓰였던 인조석 씻어내기가 아니고 인조석 갈기로 한 것이 다를 뿐 같은 시기공법을 나타내고 있다. 방바닥의 하부 위치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건립 초기에는 일본식 다다미를 깔았다가 후에 온돌구들로 개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평면 조직은 일본식이나 우리의 전통 간살을 따르고 있지 않고 거실과 개실의 구분된 서양 근대형식이다. 화장실은 본체에 있지 않고 대문의 한켠에 별동으로 분리시켜 놓고 있다.



사진20. 관덕로6길18



사진21. 관덕로6길18 후면



사진22. 관덕로6길18
외부상세

다-6. 탐동로15길48의 강씨 주택은 1957년에 지어졌다. 제주돌을 다듬어 쌓은 조적구조이고 지붕은 시멘트제의 일식 기와를 이었다. 이시대의 돌쌓기는 일본식 석축기술인 견치쌓기의 영향을 받아서 규격화된 돌을 비교적 면바르게 쌓는 공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 돌쌓기는 제주도 지역에서 시멘트 벽돌이 보급되기 전 상당기간 동안 널리 쓰였던 토착공법이 되었다.

평면 형태는 구형/矩形 평면에서 변화의 초기형인 짧게 돌출한 ㄱ자형인데 돌출한 부분이 응점실이다. 중앙의 대청 전면 전부를 현관으로 쓰고 이 현관에서 바로 응점실에 출입한다. 나머지는 대청의 양편에 방이 있는 전통적인 간잠이를 선택하고 있다.

전통에서 벗어나 처음 일본식을 본따라 지은 집들은 차차 기후 풍토적인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활방식과 비바람이 많은 기후특성에 알맞게 정착되어간다. 이집은 이 풍토적 수정 현상을 보여주는 표본이 될 만하다.

이 풍토적 수정현상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처마부분이 바람에 대한 해결책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식집의 처마는 서까래가 노출되거나 바람막이 널판이 노출되어 있어서 비바람에 취약하다. 처마 끝에 메달아 놓은 흙통은 폭우에 넘치기 일쑤이고 무엇보다 강풍에 떨어져 나가기도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콘크리트 처마와 지붕벽으로 기와지붕의 단부를 감싸버리면 처마의 취약점과 빗물처리를 모두 해결하는 방안을 창안해 낸 것이다.



사진23. 탑동로15-48 강씨가



사진24. 탑동로15-48 내부



사진25. 탑동로15-48 상세

조적구조의 건물은 지붕의 하중을 조적벽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벽의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테두리 보를 반드시 두는 것이 안정된 구법인데 여기 이 테두리보에서 처마를 내밀고 지붕벽을 쌓아서 처마 마구리를 감싸주면 이 부분이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빗물처리를 위한 넉넉한 우수 단면을 얻게된다. 이 처마끝 상세는 이후 지붕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구조로 바뀔 때까지 목조틀을 사용한 지붕을 가진 주택에 급속하게 과급되어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조형 요소가 되었다.

더구나 이 지붕벽은 전통 초가지붕의 중량감을 유감해주어서 더욱 친근하게 서민 주택에 수용되었으리라 본다. 더러는 이곳에 무늬나 문양을 그려넣어 장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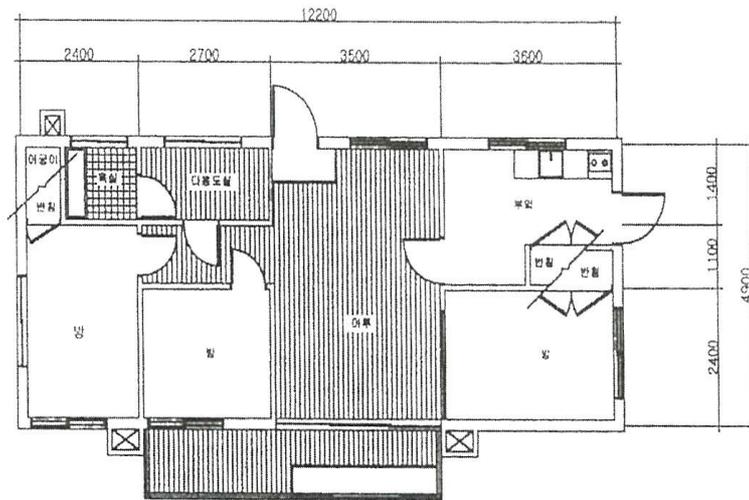
다-7. 공영주택/정부의 공공 주택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대량 파괴된 주택을 복구 하는데 집중되었다. 대량 건설, 대량공급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이때 일제시대의 조선주택영단이 주택 공급을 위한 기술적 기반조직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정부는 이 기관을 대한주택영단으로 개칭하여 주택 공급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조선주택영단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1년에 전쟁수행의 목적으로 설립했던 기관이다. 이 주택영단 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외국원조 기관들이 활약했다.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은 5500호의 후생주택을 전국 각 도에 건설하였다.

대량공급을 목표로하는 공영주택에는 목가구조 방식보다는 조적조가 적합하다. 또 지붕에는 간이식 트러스 구조를 새롭게 채용하였다. 미군공병대에서 군막사에

주로 활용하는 이 콘크리트 블럭의 조적식 벽체와 간이지붕 트러스 구조는 미송 2"×4"의 비교적 단일한 규격의 목재로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제작이 간편하고 목재의 양이 적게 소요되어 경제성이 높다. 일본집에서 배워서 사용해오던 지금까지 왕대공 트러스나 대들보식 목가구조의 지붕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내부 공간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쉬운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축해 낼 수 있었다.



<사진26. 삼도동에 조성당시 공영주택군>



<도면8. 공영주택평면도/김호선 실측>

제주에서 최초 공영주택은 1957년에 읍성 남문밖 삼도동 지역과 이도1동에 20여동이 집단적으로 지어 졌었다. 주택자금을 20년 장기융자해주고 주재료인 목재와 시멘트는 군수용과 동일한 원조자재가 지원되었다. 지금 삼도동지역에 2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지붕재료가 원래 일식기와에서 강판으로 교체되어 외양이 바뀌어 있지만 간이지붕 트러스 박공지붕의 원형은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또 몇 곳의 중산간 마을에 4.3복구 주택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복구형 주택은 방, 마루, 부엌3칸 소규모 평면을 2호 연립으로 해서 경제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 주택 도 지붕틀은 간이지붕 트러스를 올린 박공형 지붕인데 벽체를 제주돌로 쌓고 있다. 여기에서도 원조자재인 시멘트가 지원되었으나 양이 충분하지 못해

서 제주돌을 채석해서 벽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선택이었다.

이런 형편을 거치고난 후 시멘트 생산이 본격화되고 나서 시멘트 벽돌이나 ब्ल럭을 사용한 조적구조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공영주택들은 이렇게 구조와 시공면에서 서구식이 도입되는 혁신뿐만 아니고 설계계획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평면을 보면 마루방을 거실로 해서 주택의 생활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했고, 전면에 침실 3개가 배치되고 후면에는 변소, 욕실, 부엌을 배치하고 있다. 전통 민가와 비교해 보면 전, 후면에 뒷마루가 없어지고, 이동은 내부에서 실간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협소하지만, 별도의 현관을 두고, 변소, 욕실까지 내부에 두었다. 그리고 부엌, 욕실, 변소를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근대주거의 합리적인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사진27. 현존 공영주택 전면



사진28. 현존 공영주택 후면

이러한 공간구조가 선택된 이유는 전통적인 의례행위가 이루어지는 마루를 중심으로 양측에 방을 두어 주공간을 형성하고 후면부에는 새로워진 설비요소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설비를 집중시키는 근대화된 계획기법을 활용해 보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제거식화장실의 악취와 청결 유지의 불편은 도시 기반 시설이 영세했던 지역 형편에 맞지 않았다.

또한 박공지붕은 경제성 위주의 불가피한 선택, 즉 값싼 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뿐이었다.

4. 종합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근대시기의 끝자락인 1960년대 중반까지도 제주시의 경관은 일본풍이 짙게 드러져 있었다. 일본이 서양의 것과 자기들의 전통을 버무려낸 화양절충형 평면이다. 관벽에 기와로 지붕을 덮거나 목골조에 시멘트몰탈 뿌림이나 인조석 씻어내기(아라이 다시)로 마감하는 ‘오카베집’이 도심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사와 사택들과 세력가들이 지은 주택들이 모두 이 모습이었다. 한편 큰길의 연변

에는 아래층을 상점으로 쓰고 위층에서 살림하는 일식목조의 병용주택이 도시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풍경은 당시 관문이었던 제주항에서 도심지역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그리고 멀리 떨어진 한림, 서귀포, 성산포 등 주로 어업 거점이었던 소읍에도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

일식 주거문화는 이처럼 관사나 사택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거공간에 이식되어갔다. 특히 화장실, 욕실·부엌 등 서비스공간에서 위생관념이 형성되어 가는 데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 이 일식 주거들에서 크게 새로운 부분은 화장실이다. 이 일식집의 화장실은 수거식이지만 상당히 위생적이었다. 대변기와 소변기를 별도의 칸으로 나누고 대변기가 있는 공간에는 벽체 상, 하부에 창을 내어 통풍이 원활하도록 했다. 소변기와 대변기를 구분한 화장실, 가마솥을 이용한 욕실 등은 모두 우리의 재래식 주택에는 없던 선진된 형식의 위생공간이었다.

현관은 한·일 절충식 주택이 등장하면서 우리 주거에 새롭게 수용된 공간이다. 우리들의 전통주거에는 현관이 없었다. 어두운 현관을 이용하기보다 남향의 마루로 직접 출입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일제강점 초기에 유입되었던 다다미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온돌로 바뀌었고, 어둡고 긴 복도공간은 밝은 대청마루 공간으로 대체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일식주택은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것들은 국권과 자생문화를 침탈했던 치욕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들 고유 주거형식의 내면에 까지 깊게 영향하였음은 엄연하다.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과학적인 구조, 공법의 도입은 이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반세기에 가까운 일제강점기를 거쳤음에도 일식주거가 우리 주거문화의 근간까지 흔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주거문화에 불변인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관덕로 17길의 고씨주택은 제주전통주거의 전형인 안밖거리집의 틀을 그대로 지키면서 일식 주거의 기술과 신재료를 융합시킨 초기 사례로서 특히 일식 전통 주거의 우호/兩戶시설로 전통공간이 비바람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우호는 제주의 기후조건에 대응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장치이다.

삼도동1155번지 한식제주기와집은 배치 방식과 간접이가 전통을 벗어나 있으나 구체와 외양은 토속을 고수하고 있는 사례이고, 삼도2동 1174의 주택은 배치와 목조기법이 일본식이고 배치개념의 도시화된 현상을 보여준다.

중앙로 86번지의 경우는 현관을 둔 근대식 평면형식을 보여주며 신재료의 활용이 확대되고 장식적 욕구가 강조된 새 개념의 건축미학이 감지된다. 외양에 신사조인 일식 목구조 상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1950년대 탐동로 15길 강씨택에 이르면 이 신사조에 기후풍토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서 비바람에 대처한 실리적인 상세와 육중한 감을 주는 전통적 미감을 회복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의 일식주거가 우리 주거에 미친 영향은 콘크리트나 벽돌조, 서양식목구조의 신기술과 주거에 위생적 관념을 전수해준 순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의 초반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늦게 제주도에 건설된 초기 공영주택은 주거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남긴 수준이 일식주거의 경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적식 구조와 양식지붕트러스구조가 공영주택이 전해준 새로운 기술이다. 그러나 박공지붕은 비바람에 취약한 형태이다.

서구식의 합리적 평면조직과 경제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주거가 근대화되었다 할 수 없다. 즉 도시기반시설의 뒷받침이 없이 토착주거관습이 달라지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근대재료인 시멘트와 철과 판유리 등이 국산화되어 공급이 크게 확대된 후에 비로소 우리 주거가 주체적으로 근대성을 실현하는 단계를 맞게 된다.

5. 결론

근대시기는 한국 주거문화의 격변기이다. 본토와 시기가 크게 어긋나지 않으나 제주의 경우는 양상이 색다른 데가 있다.

서구 성향 보다 일본풍 영향이 두드러지고 도시한옥의 출현과정이 없었다. 이것은 일본의 남부지역과 동일한 기후대에 있는 지리환경과 본토와의 교류보다 일본과의 문물 교류가 더 빈번했던 것을 얘기해준다.

주거의식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지만 주택을 제작하는 기술과 재료들이 근대형식을 익혀가고 있었다.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근대시기 제주주거의 성격으로 정하려 한다.

1. 근대시기 초에는 제주주택은 전통기법을 기본틀로 하고 일본식과 절충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즉 안밖거리집의 배치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목공기법으로 심벽구조로 결구하고 제주돌로 외벽을 쌓는다.

2. 아마도/雨戶와 아마하시/雨端 등 풍우에 대비한 일본식주택의 상세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3. 일제 강점기의 중, 후반에 현관이나 실내 화장실 등 근대성 주거개념에 따른 주택형태들이 등장하였다.

4. 주택의 구조 방식이 목조가구식에서 조적구조로 바뀌었다. 조적구조가 초기에는 현지재료인 제주돌을 사용하다가 후에 시멘트의 보급이 확대되자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럭을 사용하게 된다.

5. 목조심벽구조에 제주돌 외벽 쌓기와 현관이 출현한 것을 비롯하여 우호/ 雨戶

와 아마하시/雨端, 그리고 처마끝의 취약점을 해결한 지붕벽 시설 등
기후적 특성에 대처하여 수용하거나 창안해 낸 공법과 상세들이 근대시기 제주주
거의 성격을 규정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홍식/민족건축론/한길사 1987.
이진경/근대적주거공간의탄생/소명출판 2000.
전남일 외/한국주거의사회사/돌베개 2008.
임창복/한국의주택 그 유형의 변천사/돌베개 2011.
전봉희, 권용찬/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동녘 2012.